

영암사랑상품권 ‘월출페이’ 9월 더 편리하게 돌아온다

5월까지 447억 발행...이용 급증 캐시백 조기 소진 군, 모바일 기능 도입·간편결제 연계 등 거처 재개

영암군 지역사랑상품권 ‘월출페이’가 군민들의 높은 이용 속에 지난해 연간 발행 규모를 상반기 만에 넘어서는 흥행을 기록했다.

군은 캐시백 예산 조기 소진으로 현재 인센티브 지급을 일시 중단했지만, 추가 예산 확보와 서비스 고도화를 마친 뒤 오

는 9월 캐시백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다. 30일 영암군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월출페이 총 발행액은 447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발행액 43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가입 회원도 지난해 말 2만4258명에서 3만6127명으로 1만1000명 이상 늘었다. 월출페이는 음식점과 카페, 병·의원, 주



군은 월출페이 이용 증가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소 등 생활밀착형 가맹점에서 일상적으로 이용되며 군민들의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지역경제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은 올해 15% 상당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소비 활성화를 추진해 왔지만 예상보다 많은 군민들이 월출페이를 이용하면서 인센티브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소진됐다.

이에 따라 군은 8월까지 캐시백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캐시백만 일시 중단될 뿐 기존 충전금은 충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결제 서비스도 변함없이 이용 가능하다.

군은 이번 조치를 지속 가능한 월출페

이 운영과 안정적인 혜택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고, 9월부터는 차질 없이 캐시백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군은 캐시백이 중단되는 기간을 서비스 개선 기간으로 활용해 월출페이 앱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 각종 정책지원금을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결제 편의성과 서버 안정성을 높여 이용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연계 기능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월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월출페이를 적극 이용해 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에 예상보다 빠르게 이용이 늘어나 캐시백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며 “9월에는 더욱 편리해진 서비스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군민들께 다시 찾아가 월출페이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정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해남, 군민 체감하는 창의·적극행정 ‘눈에 띄네’

국가시컴퓨팅센터 신속 건축허가 최우수 사례 등 8명 선정

해남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을 선정했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발행실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심사와 함께 우수공무원 선발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최우수 사례에는 건축허가와 고기수 주무관의 ‘솔라시도 국가시컴퓨팅센터 건축허가 추진’이 선정됐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건립 예정인 ‘국

가시컴퓨팅센터’신축과 관련해 대규모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 내부 부서와 외부 관계기관 등 총 28건의 복합적인 인허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1개월 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협업 분야에서는 관광실 조연수 주무관을 비롯한 안전교통과 장순민 팀장, 공릉박물관 최수진 팀장이 추진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안전한 공릉대축제’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축제 안전관리와 교통,

행사 운영 부서 간 긴밀한 협업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어 낸 점이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복지정책과 박원희 주무관의 ‘해남군 그랜드리조트를 통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실현’, 농정과 치수회 주무관의 ‘의곡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 기획실 명승우 주무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행정 불신을 시달리 행정’으로, 해남문화관광재단 조인재 팀장의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땅끝해남 반값여행’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근무성적평정 가점, 군수 표창

과 포상금, 희망부서 전보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군은 우수사례를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로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적극 행정 우수사례 확산과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민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공직자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완도군은 최근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6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에서 슬로시티 가치 확산과 지역 발전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026 한국 슬로시티 챔피언'을 수상했다. 사진제공=완도군청

완도, 슬로시티 가치 인정...‘챔피언상’ 수상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 참석...지속가능 관광 정책 모색

완도군은 최근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6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에 참석해 슬로시티 정책 성과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총회에서 완도군은 슬로시티 가치 확산과 지역 발전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026 한국 슬로시티 챔피언’을 수상했으며,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12년간 슬로시티 정책을 이끌어 온 공로로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완도군은 그동안 청산도 슬로길, 구들장 논, 돌담길 등 지역 고유 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치유와 섬 관광, 로컬 푸드, 주민 참여형 관광 콘텐츠를 통해 슬로시티의 가치를 높여 왔다.

특히 ‘2025년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 개최지로서 ‘완도 공동 선언문’ 채택을 이끌어 내며 도시 간 연대의 중요성을 국제 사회에 알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가별 슬로시티 동향 보고, 분야별 우수 사례 발표, 연맹 주요 프로젝트 보고 등이 진행됐다.

또 슬로시티 도시 간 교류 확대와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 협력 방안에도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출장단은 총회 참석과 함께 시에나, 그

레베 인 키안티, 포지타노, 마엔차 등을 방문해 환경 정책, 슬로투어리즘, 빈집 활용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마엔차의 ‘1유로 하우스’ 정책은 지역을 알리는 마케팅 사례임을 파악하고, 포지타노에서는 우수한 경관 자체보다 관광객이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콘텐츠의 연계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총회에 참석한 이범우 완도부군수는 “완도군이 한국 슬로시티 챔피언을 수상한 것은 완도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슬로시티 정책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이다”며 “국제 슬로시티 도시 간 교류 활성화로 완도를 세계인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슬로시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이탈리아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정책, 빈집 활용, 체류형 관광, 지역 브랜드 전략 등을 관광 정책에 접목하고, 청산도를 비롯한 완도 전역의 고유한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완도=김해국 기자 krk1831@gwangnam.co.kr

신안,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추진

취약계층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압해읍 신안군민체육센터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섬마을 찾아가는 행복 세탁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서비스에는 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압해읍새마을부녀회, 신안지역자활센터, 한국성진흥원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4.5t 이동세탁차량을 활용해 취약계층 이불 260여채를 세탁·건조한 뒤 각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한 어르신은 “무거운 이불은 혼자 세탁하기 어려웠는데, 깨끗하게 세탁된 이불을 받으니 새 이불을 덮는 기분이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압해읍새마을부녀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깨끗한 이불을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6년 12개 읍·면 순회하며 찾아가는 이동세탁 서비스를 추진해 총 697명의 취약계층에게 이불 2416채 세탁을 지원했으며, 자원봉사자가 39명이 함께 참여해 민관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민관협력력을 바탕으로 이동세탁차량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취약계층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강진 보은산 V랜드 일원에서 열린 제4회 강진수국길축제에 5만여명의 관광객이 북적이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제공=강진군청

강진수국길축제 5만여명 관광객 ‘복적’

수국·체험·물놀이 등 여름 대표 꽃축제 자리매김 도깨비시장길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 소비 촉진

강진 보은산 V랜드 일원에서 열린 제4회 강진수국길축제에 5만여명의 관광객이 북적이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뷰티풀 수국, 뷰티풀 강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아름다운 수국 경관과 다채로운 체험, 공연, 지역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참여형 축제로 운영되며 강진의 대표 여름 꽃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축제에는 관광객 5만4338명이 방문해 전년 4만8174명보다 13% 증가했다.

각종 체험에도 4168명이 참여해 전년 1835명보다 무려 127% 증가했다. 더불어 음식점과 각종 농특산물 판매도

전년보다 7% 가까운 신장세를 보였다. 축제장 곳곳에 조성된 수국 정원과 수국 꽃길, 감성 포토존, 그린 터널은 형형색색의 수국과 함께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보은산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수국길은 가족과 연인, 친구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축제 기간 내내 인생사진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축제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지역 상생형 축제로 운영됐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축제와 연계한 도깨비시장길 골목상권 활성화 행사와 오감통 자율상권 활성화 행사에는 많은 방문객이 찾으며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상품권 페

이백 이벤트와 공공배달업 먹거리 할인, 내돈내산 SNS 리뷰 이벤트 등도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축제장 내 화훼농가 꽃 판매장과 초록민음 농특산물 판매장, 강진노을장, 푸드트럭 등도 축제기간 꾸준한 발길을 모았으며,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확대와 상가 이용 증가로 이어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가지 성과를 함께 거둔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강진수국길축제는 아름다운 수국과 다양한 체험, 지역 상권이 함께 어우러진 여름 대표 꽃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강진만의 특색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에서 찾는 대표 꽃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2252@gwangnam.co.kr



진도, 농업인 은열질환 예방 현장활동

예방 요원 9명 읍·면 농작업 현장 순회...안정정보 제공

진도군은 본격적인 폭염기를 맞아 농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은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여름철에 고온의 야외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폭염이 집중되는 6월부터 8월까지 고령의 농업인과 취약 농가, 야외 농작업 현장을 중심으로 은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며, 현장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 농가의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무더위 시간대에 농작업을 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의 은열질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9명의 은열질환 예방 요원이 읍·면의 농작업 현장을 순회하며,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물 자주 마시기,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모자·토시 등 보호장비 착용, 단독 작업 자제 등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박윤수 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 분야에서 은열질환은 대부분 야외 작업 중에 발생하는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폭염기 현장 지도와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399@gwangnam.co.kr